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족을 위한 목회적 돌봄¹⁾

최 광 현*

국문초록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안의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갈등 발생의 근본원인은 그 가족이 가진 역기능적인 가족시스템과 구조에 있다. 가족 시스템이론 안에서 가족들의 인식과 행동의 구조는 가족시스템의 구조와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가족 안의 갈등은 더 이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의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 기인된 문제가 아니다. 한 가족시스템에서 발생된 갈등은 그 가족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표현된 것으로 본다. 즉, 역기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위기와 갈등은 바로 가족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가족상담은 교회현장 속에서 상담사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활동영역이 될 수 있다. 목회자는 가족문제와 같은 가족문제를 개입하는데 보다 치료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학과 목회 그리고 상담이 같은 분명한 지평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를 가족체계이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가족목회 돌봄의 모델이 기독교상담 영역 안에서 수용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중심단어 : 가족체계, 가족위기, 목회적 돌봄, 역기능적 가족, 기독교상담

-
- 논문 투고일: 2011년 10월 14일
 -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8일

- 논문 수정일: 2011년 10월 29일

*한세대학교

1) 이 논문은 2011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여는 글

오늘 날 이혼은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선혜, 신영화, 서진환은 한국에서 결혼한 10쌍의 부부 중 4쌍이 이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알려준다.²⁾ 이제 이혼율의 급격한 성장은 한국사회의 앞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구사회의 예를 들지 않아도 이혼은 결코 이혼한 가정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역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혼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 이혼율 40%에는 상당수의 기독교인 부부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상정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파괴는 이제 교회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목회적인 돌봄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크리스천 가정의 파괴와 이혼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이혼한 부부는 주위의 이목이 두려워 정든 교회를 떠나게 되며 신앙의 동지를 떠난 그들의 믿음은 방황하게 될 수 있다. 이들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자녀는 만일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교회의 틀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였겠지만,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을 일상의 영역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내어 몬다. 자녀 양육을 책임진 한쪽 부모가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되면 자녀들 역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더구나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충격과 상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의 정서장애를 가져올 뿐 아니라 올바른 신앙성장을 저해한다. 그럼 돌봄과 영적인 양육의 사명을 지닌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혼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과연 성도들이 직면한 가정의 위기와 갈등을 목회자가 도울 방법은 없는가? 이러

2) 이선혜·신영화·서진환, “한국 가족치료의 현장과 인력: 전국기관 조사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제13권 1호 (2005): 79-100.

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가족체계이론을 통한 새로운 가족목회 패러다임 속에서 논의 될 수 있다. 가족체계(family system)이론의 관점에서 가족위기의 문제를 보면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기인한 무엇인가의 반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소산으로 보게 된다. 여기서 가족위기의 변화는 가족의 내면이나 외부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가족 개개인들이 처한 상황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서 발생한다. 가족상담은 가족들이 환경간의 환류, 즉 가족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변화된 환경이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체계이론의 관점은 가족위기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분명히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위기에 대한 적절한 도구로 가족체계이론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가족상담이 목회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서술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상담에 대한 이해를 서술하고, 가족위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적 돌봄의 시각 속에서 가족체계이론이 접목 될 수 있으며 목회자가 가족체계이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서술 할 것이다.

II. 펴는 글

1. 가족체계이론의 이해

1) 목회영성과 가족상담

이만홍은 “십년 전 어느 우울증 환자를 치료했던 적이 있다. 그 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치료는 잘 되었지만 왜 그 분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며 우울증이라는 고통이 그 분의 인생여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영적인 문제)는 오랫동안 그야 말로 정신치료자들에게 ‘묻지마’의 영역이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동시에 치료자간 환자

건 인간이면 누구나가 풀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욕구이며, 정신치료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숙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라는 타이틀로서 오랫동안 종교적인 틀 속에 갇혀 왔었다.”³⁾고 밝힌다. 정신분석가인 이만홍의 고민은 이제 심리 상담과 가족치료 분야에 화두가 되고 있다. 심리학과 목회영성의 주제는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럼, 목회영성은 오늘날 심리학과 심리 상담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Freud는 종교가 심리학적 소원의 완성이라고 말하였으며 영성은 환상일 뿐이고 오히려 현실직면을 방해한다고 말하였다. Freud는 이렇게 하여 심리학 안에 종교와 영성의 자리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심리학과 상담은 정신건강과 연관하여 영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Freud와는 다르게 목사의 아들이었던 Jung은 일생 동안 영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⁴⁾ 그는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는 것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자각하였으며 인간 영혼의 발달에 지침을 주고 있는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치료적 상징체계들”이라고 불렀다. Jung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은 무의미한 삶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35세가 넘는 내담자들의 진짜 문제는 영성적 조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⁵⁾ 용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은 많은 논란을 제공하였는데,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신을 부정하는 듯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섭섭함을 나타내었다. Maslow는 인간의 모든 동기가 공기와 음식, 물 등을 원하는 신체적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신체적 욕구 다음으로 안전, 사랑, 존경, 자아실현을

3) Seymour Boorstein, *Transpersonal Psychotherapy*, 정성덕 역, 『자아초월정신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2008), 추천의 글.

4) L. Bader, *Zwischen Wahn und Wirklichkeit* (Luzern: Bucher, 1976), 83-91.

5) C. E. Westgate, “Spiritual Wellness &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no.1 (1996): 26.

추구하는 네 가지 단계의 심리적 욕구가 뒤따른다. 그는 초월적 자아실현은 영성적 의미를 지닌다고 밝힌다.⁶⁾ DSM-IV에서 영성을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시사하고 있다.⁷⁾

Freud이 후 활짝 열린 심리학의 영역 속에서 사실 목회영성의 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작업이다.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에 목회영성의 부분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최근의 심리학은 목회영성의 영역 속에서 자기 자리를 세우고 있다. 심리학분야에 목회영성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차지하는 흐름 속에서 가족상담 안에서 목회영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Nichols & Schwartz의 저서인 *Family Therapy: Concept and Methods* (2006)와 Goldenberg & Goldenberg의 저서인 *Family Therapy: An Overview* (2008)에서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목회영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이제 목회영성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심리학과 가족치료의 영역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음은 목회영성과 접촉의 가능성을 시도하는 가족상담이 무엇이며 목회적 돌봄을 위한 가족상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가족상담은 무엇인가?: 가족상담의 모델들

1950년대에 John Bell, Nathan Ackerman 같은 심리 치료사들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전체를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상담에서 내담자만을 관찰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내담자의 가족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Bell과 Ackerman의 생각은 가족체계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가족의 문제를 효과적

6) Abraham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오혜경 역, 『동기와 성격』 (서울: 21세기북스, 2009), 289.

7) 미국정신의학회, 『DSM-IV(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 (서울: 하나의학사, 1995), 234.

으로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다.⁸⁾ 한 가족의 문제와 갈등을 개개인의 특성에서 파악하지 않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가족체계를 통해서 바라보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가진 증상을 가족갈등의 상징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가족체계이론은 다양한 가족치료모델의 이론가들과 치료사들에게서 더욱 발전한다.⁹⁾

가족치료는 오늘날까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치료모델들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가족치료의 1세대로 불리지는 고전적 가족치료는 1980년대 이전의 가족치료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Bowen의 다세대가족치료, Minuchin의 구조주의 가족치료, Satir의 성장중심의 가족치료, Haley의 전략적 가족치료, Palazzoli의 체계적인 가족치료 등이 포함된다. 1980년대 이후로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였던 포스트모던의 구성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가족치료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왔다. 구성주의는 철학에서 시작된 사고로 한마디로 설명되지 않지만 모든 사물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주관적으로 인간에게 인식되어진 것으로 본다. 모든 사물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지 관찰되어지는 것이다.

Boscolo와 Cecchin은 이러한 구성주의를 가족치료에 적용시켰으며 이것이 가족치료 2세대의 시작이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물리학자인 Foerster에 의해 발전되었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인간의 인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의 인식은 상대적인 것이며 인간의 각자의 인식은 단지 구성되어진 것이라고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구성되어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이제 가족치료 2세대에서의 상담이란 관찰자와 관찰하는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이다.¹⁰⁾ 상담사와 가족전체는 서로 관찰

8) A. von Schlippe & J. Schweitzer, *Lehrbuch der Systemischen Therapie und Beratung* (Paderborn: Vandenhoeck & Ruprecht, 1999), 24.

9) A. Bautsch & A. Wiesinger, *Systemwissenschaftliche Integrationsversuche in der Psychotherapie* (Frankfurt am Main: IKO-Verl. 1989), 40.

10) N. Luhmann, *Soziale Systeme, Grundriss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84), 200-202.

을 통하여 역기능적인 가족시스템을 찾아간다. 이전에 상담사는 역기능적인 시스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가족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기능적인 시스템을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상담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가족상담 안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상담에서 내담자인 가족구성원들의 자원이 최대한 활용되어진다.¹¹⁾ 내담자는 이전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내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상담사는 이제 내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해결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이다. 이러한 개념은 가족치료에 새로운 치료방법을 제공한다. 가족치료 2세대에는 Palazzoli와 함께 Milano모형을 발전시킨 Boscolo와 Cecchin에 의해 새롭게 시작된 체계가족치료, 김인수의 해결중심의 가족치료, Anderson의 언어적 가족치료, White의 이야기 가족치료 등이 포함된다.

3) 상호작용하는 전체의 합으로서의 가족

Bautsch & Wiesinger는 가족상담이란 가족을 하나의 전체 단위로 취급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고려하는 관점이라고 하였다.¹²⁾ 인간의 문제와 갈등을 치유는 여러 다양한 상담방법 중에 하나인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System)으로 보며, 한 개인의 문제원인을 그 개인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연결 속에서 찾는다. 한 가족 안에서 자녀가 탈선하여 문제가 되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면 더 이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 시스템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본다.

11) V. Satir, *Familienbehandlung* (Stuttgart: Krett-Cotta, 1979), 33-40.

12) Bautsch & Wiesinger, *Systemwissenschaftliche Integrationsversuche in der Psychotherapie*, 210.

이 시스템이라는 말은 서로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의 합이라는 말이다.¹³⁾ 가족시스템에서 요소는 가족 구성원들이 된다. 시스템으로서의 가족이해는 아기 방의 천장에 달린 모빌을 생각하면 된다. 4-5조각으로 만들어진 모빌이 천장에 매달려있다. 모빌의 한 부분을 가볍게 건드리면 모든 조각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한동안 몇몇 조각들은 균형을 잃고 혼란스럽게 움직이다가 점차 전체 모빌의 움직임의 방향이 결정되어 이것이 모빌 전체에 영향을 주며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한 가족시스템의 가족구성원들은 모빌처럼 서로 상호의존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가족시스템의 원리이다.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내담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개인 심리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이 개인상담인 반면, 체계적 가족상담은 개인 보다 사회적 요인에 중점을 두며 가족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 초점을 둔다.

Jones은 가족을 체계로서 보면서 가족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¹⁴⁾ 어느 구성원도 가족체계 안에서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 안에는 일정한 행동양식과 언어적 습관 그리고 가족들 간의 일정한 관계형태를 형성하게 된다. 한 가족이 오랜 동안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해온 독특한 가족문화는 가족의 규칙이 된다. 만일 한 가족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가족구성원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그 동안 가족 구성원들이 유지해온 가족규칙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문제를 개인이 아닌 가족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병리적 증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13) G. Bateson, *Oekologie des Geist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99), 100-120.

14) E. Jones, *Systemische Familien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1995), 37.

를 준다.¹⁵⁾

한 가족구성원이 갖는 증상은 가족전체가 가진 역기능적인 체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가족이 유지해온 잘못된 규칙과 의사소통 방식이나 왜곡된 관계형태 등이 잘 기능하지 못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인식한다.¹⁶⁾ 따라서 가족상담에서는 증상을 현재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 체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의 문제와 갈등을 개개인의 특성에서 파악하지 않고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체계를 통해서 바라보고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가진 증상을 문제체계의 상징으로 파악하려는 관점은 체계적 가족상담에서의 문제해결과 치료를 위한 전제가 된다.

Minuchin은 상담이 필요한 한 가족을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고 하기보다 ‘역기능적인 가족(dysfunctional family)’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가족은 존재 할 수 없으며 단지 그 가족이 기능하지 못할 뿐이기 때문이다.¹⁷⁾ 이러한 관점 속에서 역기능적 가족은 어떤 개인의 문제에게 보다 그 가족이 가진 역기능적 패턴 즉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패턴에 원인이 있으며 치료적 개입은 어떤 특정의 개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닌 이러한 역기능적 패턴을 계속하는 가족구성원 전체가 대상이 된다.¹⁸⁾ 여기서 Napier & Whitaker가 말한 “가족이 환자(the family is the patient)”라는 말을 인용할 수 있다.¹⁹⁾ 가족시스템이론은 가족의 문제를 한 개인에게서 가족 전체로 시야를 돌리며 가족의 위기와 갈등이 한 개인에서 발생하는

15) Schlippe & Schweitzer, *Lehrbuch der Systemischen Therapie und Beratung*, 29.

16) Bautsch & Wiesinger, *Systemwissenschaftliche Integrationsversuche in der Psychotherapie*, 110.

17) S. Minuchin, *Family &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60-64.

18) Schlippe & Schweitzer, *Lehrbuch der Systemischen Therapie und Beratung*, 20.

19) A. Napier & C. Whitaker, *The Family Crucible* (New York: Haper & Row, 1978), 102.

것이 아닌 역기능적인 가족 시스템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본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녀 문제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부부문제 등으로 목회자를 찾아올 수 있다. 여기서 목회자들이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가족위기를 바라본다면 더욱 효과적인 목회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부간의 갈등은 싸우는 당사자들의 성격이 달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갈등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역기능적인 그 가족체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족위기를 위한 목회적 돌봄을 다루기전에 가족체계의 위기가 무엇이고 가족위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목회적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다.

2. 가족체계와 가족의 위기

1) 가족체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상황

가족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는 예를 들어 가족이 갑자기 거주지를 옮기게 되거나 직업이 변경되거나 또는 IMF때와 같은 경제적 불경기와 같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에 가치관의 혼란이 발생하며 이것은 가족의 위기를 유발한다. 우선, 외부적 환경이 갑자기 변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가족이 이러한 외부적 도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가족위기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 한국이 IMF 상황에 처하자마자 갑자기 이혼율이 증가하였던 것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근거자료 일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능력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다. 여기서 가족이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가는 가족항상성(Homeostasis)과 관련이 있다.²⁰⁾ 가족이 가진 일정한 원리에

20) L. Boscolo, G. Cecchin, L. Hoffman, & P. Penn, *Familientherapie-System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1990), 35.

의하면 가족항상성의 원칙이 있다. 가족은 언제나 일정한 균형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말한다. 지나친 자기욕구의 억압이 있다면 이러한 지나친 경향성에 대해 반대적인 행동이 발생한다. 즉, 다른 자녀가 이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자녀는 가족 안에서 문제아이며 골칫덩어리로 인식된다. 이러한 양극단성의 행동은 위기와 문제에 처해 있는 가정에게 일시적인 안정과 문제해결을 가져다준다. 위태위태한 배위에서 사람들이 배의 균형을 잡고자 양 모서리에 자리를 잡는 것과 같이 일시적인 균형을 가져다준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 안에 무게와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각기 서로 유사한 행동양식을 갖고 있다. 가족은 가족 안에서 일정한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 한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로 반응하거나 해서 가족 안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항상성은 가족의 일정한 습관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족은 항상성의 법칙에 의해 가족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가족 항상성은 가족 간의 느낌, 안정감, 생산성, 친밀감과 관계 의식, 통합된 구조의식, 책임감, 도전과 자극의 욕구, 기쁨과 긍정의 욕구 등 모든 가족의 심리적 욕구와 일상사에서 나타내게 된다.

한 가정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대기업의 중견사원으로 어렵지 않게 살았다. 가정의 수입을 책임진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담당부서를 정리하면서 실직하게 된다. 경제위기라는 사회적인 위기 상황이 몰고 온 남편의 실직과 가족의 재정적 수입의 상실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이 가족의 문제의 해결은 그 동안 유지해온 생활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적응함으로써 가능하다. 부인은 남편이 실직하기 전까지는 집안일에 시간을 가졌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시간을 보내었다. 이제 부인은 가사를 위한 시간을 줄이고 부업을 찾아 나선다. 자녀들에게는 그 동안 막대한 학원비와 과외비가 나갔다. 이제는 그 비용을 줄이고 자녀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배워나간다. 남편 역시, 그 동안 익숙했던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선다. 이 가족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수입을 의존하였지만 이제는 그 역할이 어머니에게도 부담된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소비 욕을 절제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가족 위기의 대처 방안은 변화된 생활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다. 만일 위에 가족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없었다면, 가족향상성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 가족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졌을 것이다. 즉, 남편의 실직과 수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부인이 친구들과의 사교모임에 열중이고 자녀들은 고액의 학원비를 내고 여전히 소비하려고 했다면 이 가족은 결국 재정적 파산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서 가족에게 절실하게 필요 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적응성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성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질병과 죽음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2) 가족생활 주기에서 오는 위기상황

대부분의 가족은 인생의 주기 속에서 다양한 가족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의 갈등과 위기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정상적인 가족생활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 갈등과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위기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닌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다르냐에 따라 그 가족의 앞날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오히려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 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기회일 수 있다.²¹⁾ 가족생활 주기란 남녀의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 교육하면서 가족이 확대되며, 자녀가 성

21) L. S. Dodson, *Family Therapy*, 이근후·박영숙 공역,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1998), 44.

장한 후 각자 독립하면서 가족이 축소되기 시작하여, 부부가 사망함으로써 소멸되는 가족의 변화과정을 말한다. Carter & McGoldrick은 가족구성원과 가족크기의 주기변화에 따라 5가지 단계로 구분한다.²²⁾

첫 번째로 가족의 생활주기는 젊은 남녀의 만남으로 한 가정이 탄생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는 자신들이 그 동안 살아온 서로 다른 가족의 습관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부부가 자신들이 자라온 가족의 문화로부터 얼마나 잘 분리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독립된 가족의 생명이 결정된다. 만약 결혼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자신들이 살아온 가족의 시스템과 구조를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라는 이혼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단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Carter & McGoldrick은 이러한 첫 번째 과업에 성공한 부부는 그들 자신들의 가족 문화와 가족규칙을 발달시키고 자녀의 출산으로 부모와 자녀관계를 원만히 만들어간다고 한다.²³⁾ 부부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녀의 출산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이어지며, 임신과 출산은 가족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된다.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 기쁨을 얻기보다는 또 다른 부담감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된다.

이제 자녀는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학교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과 함께 규칙을 배운다. 이때 부모는 자녀들이 더 넓은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가족 안의 규칙과 사회 환경 속에서의 규칙이 조화를 이루며 적절히 기능하는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²⁴⁾ 자녀가 청년기에 도달하면 가족은 자녀가 한 성인으로 성숙 될 수 있

22) B. Carter & M. McGoldrick,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정문자 역, 『가족생활 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43.

23) Carter & McGoldrick,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30.

24) V. Satir, *Selbstwert und Kommunikation* (Stuttgart: Krett-Cotta 1975), 67.

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들이 독립심과 자율성을 갖도록 하며 자녀들의 분가를 준비해야 한다. Carter & McGoldrick은 이때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간섭은 부모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²⁵⁾ 자녀들이 집을 떠남으로 가족은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발전되며 세대 간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형성된다. 이 단계의 과업에 실패한다면 예를 들어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빈 동지를 지키게 된 부부는 이 때 더욱 친밀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며 부부 모두가 개인적 성숙을 발전시킨다. 만일 결혼 초에 발생한 잠재적 부부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자녀의 출산으로 덮여진 채 있었다면 자녀의 분가로 인해 이때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²⁶⁾

마지막 단계로 Carter & McGoldrick은 가족의 지나간 생활에 대해 나름대로 만족하며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감사할 때 비로소 부부에게 자아의 통합과 함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²⁷⁾ 노년을 맞이한 부부만이 아닌 자녀 모두가 부모의 가까운 죽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가족주기의 마지막 단계를 성숙으로 이끈다.

이처럼 한 가족은 주어진 각 시기의 발달 과업을 잘 극복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함께 다음 단계를 수행해 나간다. 그러나 가족이 각 단계를 적절하게 넘기지 못하면 심각한 가족위기와 갈등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가족주기에서 부여되는 과업을 무시하고 회피하면 문제와 갈등이 내적으로 은폐되며 이것은 가족 모두에게 잠재적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잠재적 스트레스는 결국 가족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표출된다.²⁸⁾ 초기의 부부간의 갈등이 때로는 자연스럽게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부는 서로의 갈등을 은폐하기 위해 자녀를

25) Carter & McGoldrick,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120-123.

26) J. Walter & J. Peller, *Losungs-Orientierte Kurz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1994), 56-59.

27) Carter & McGoldrick,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230-233.

28) Jones, *Systemische Familientherapie*, 28.

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했고 이것은 자녀에게 독립심과 자율성을 상실하게 했다. 자녀는 부모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고 학교라는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적응하지를 못했다. 이것은 결국 자녀의 등교 거부로 이어졌다. 즉 등교거부라는 증상은 아동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가족 시스템과 관련 것이었다. 증상은 지금 현 가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4. 가족위기상황에 처한 성도를 위한 돌봄

1) 가족문제의 세대전수

Gangel은 가족관계신학을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갔다. Ray Anderson은 한 층 더 발전시켜 가족관계신학은 구약의 언약관계를 통해 풀었다. 성서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다. 그것은 언약 신학이다. 이 언약은 구약전체를 관통하고 신약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된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노아와의 언약이다. 창 6:18.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번의 언약을 세우신다. 이 언약을 크게 쌍무적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 Balswick부부는 자녀와 부모관계를 무조건적인 언약관계로, 부부관계를 쌍무적 언약관계로 비교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결혼은 쌍무적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결혼계약의 준수여부가 계약조건이 된다고 밝힌다.²⁹⁾ Balswick부부는 재혼과 이혼등과 같은 가족의 위기는 일정한 세대 전수의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Bowen의 가족상담을 목회상담에 접목한 Friedman은 역시 가족의 문제는 세대 전수된다고 밝힌다.³⁰⁾

29) Jack O. Balswick & Judith K. Balswick, *The Family*, 황성철 역,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1995), 23-25.

30) Edwin H. Friedman, *Generation to Generation: Family Process in Church and Synagogu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85), 34-40.

Simon, Clement, Stierlin은 핵가족 안에서 관찰될 수 있는 상호작용모형들은 자주 부모의 원가족과 관련을 갖는다고 보았다.³¹⁾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사회적 역기능은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지고 발달되어온 문제점의 표현이며 그 결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가족 안에서의 가족위기에 대한 태도는 다세대적 순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희생양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오히려 오랜 다세대전수 안에서 수많은 다른 가해자의 행렬 속에서 단지 “한 가해자”로서 여겨진다. 가족위기에 관한 일정한 체계규칙과 가치감은 다세대전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실제적인 가족위기의 문제 상황 속에서 다세대전수가 갈등, 긴장 과도한 요구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세대를 고려하는 것은 의미 있다. 가족문제를 다세대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은 특히 Boszormenyi-Nagy 와 Spark, Murray Bowen등의 공헌이다. Bowen의 중요관심사는 “자기-대상-분화”의 가족특유의 메커니즘에 있었다.³²⁾ Bowen은 다세대전수의 과정과 자아상과 대상상이 불분명하게 되는 투사적 동일시가 유사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았다. 가족들 상호간의 구성과 유지, 즉 경계선이 가족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여겨진다. 근접과 떨어짐, 융합과 대상상실의 불안 사이에서의 이쪽저쪽으로 흔들림은 가족생활의 감정적 역동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Bowen은 치료의 목적으로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다세대 과정 속에서 각각의 개인적 분화와 개인적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다.

Boszormenyi-Nagy와 Spark는 맥락적 치료의 공간 속에서 다세대적 관점을 개념화 하였다. 그들은 여러 세대를 걸쳐 충성애착과 대차대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연구하였다. 자기 자신의 부모와의 불균형의 대차대조를 해

31) F. Simon, B. Clemen & H. Stierlin, *Die Sprache der Familientherapie* (Stuttgart: Klett-Cotta, 1999), 23.

32) M. Bowen,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Family Therapy*, ed. P. Guerin (New York: Gardner, 1976), 210-212.

결하기 위해 예를 들어 그들의 자녀를 대응으로 이용하는 부모는 자녀에게서 이러한 부분을 그의 자녀에게서 징수하려고 시도한다.³³⁾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통해 자신의 부모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자녀에게 되돌려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이전세대의 역기능을 다시금 반복하게 된다. Morgenthaler는 이러한 다세대전수의 과정 안에서 가족 안에 있는 한 구성원의 가족생활주기가 다음세대의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다세대 사이클 안에서 가족들은 역시 가족문제와 위기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갈등과 긴장 상태의 관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이해하고 수용의 자세 취해야 하는지를 전수 받게 된다.³⁴⁾ Friedman은 다세대전수 안에서 가족의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제안한다. 가족을 존중하고 기능적인 관계를 맺는 부부는 자녀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⁵⁾ 즉 부모기에 들어선 자녀들이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촉진적이고, 참을성 있으며 그리고 성장시키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지와 가족문제에 대한 대처기제가 상호 연결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2) 가족의 자기치유능력

Paul Tillich는 목회자가 심리치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학적 기능이나 목회적 기능은 그것의 직업적인 전형에 묶여 있지 않다. 목회자가 치료사가 될 수도 있고 심리치료사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 각 사람은 이웃과 관련하여 둘 다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서로가 서로를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³⁶⁾ 심리치료사와 목회자가 가지는 하나의 목표는 탈리히적 표현에

33) I. Boszormenyi-Nagy & G. Spark, *Unsichtbare Bindung*, 5. Aufl (Stuttgart: Klett-Cotta, 1995), 49.

34) C. Morgenthaler, *Systemische Seelsorge* (Stuttgart: Kohlhammer, 1999), 57.

35) Friedman, *Generation to Generation*, 47.

36) Paul Tillich, *The Courage to B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2), 77.

따르면 ‘존재에의 용기’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인간의 불안은 보편적 상황이며 심리치료사와 목회자가 서로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서로의 협력과 동반이 필요한 영역이다. 털리히는 가족체계이론을 세속학문으로 경계를 세우기보다 함께 인간 존재의 불안과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협력의 영역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털리히의 관점에서는 역시 성도들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체계이론과 목회신학의 만남이 가능하다.

Yarhouse와 Sells는 그들의 공저 『기독교 가족치료』에서 목회는 오늘날 결혼 및 가족치료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말한다. 그것은 예수님 때부터 가족을 회복시키고 부부를 화해시킴에 있어 능동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최근에 발전된 가족상담의 체계이론은 가족생활주의 위기문제와 가족문제의 세대전수의 문제에 대해 목회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⁷⁾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문제는 가족구성원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어떤 가족이든 고유의 구조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체계, 시대, 공통점 등에 의해 상한 영향을 받는다. 가족구성원은 누구나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다.³⁸⁾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가족의 문제와 갈등은 가족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의 구조 안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가족 구성원들 모두에게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에 관해서 질문을 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편중되고 제한된 시각에서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가족상담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달려 있다고 본다. 가족체계이론은 Anderson과 Goolishian이 말한 가족의 “자기치유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가족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사가 아

37) Mark A. Yarhouse & James N. Sells, *Family Therapies*, 전요섭의 역, 『기독교 가족치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74-76.

38) N. Langer, *Psychologie* (Muenchen: Compact Verlag, 2006), 87.

닌 바로 가족 구성원들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있다.³⁹⁾ 우선, 목회자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고, 서로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바라 볼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 목회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자기치유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기에 처한 가족이 가진 “자기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치유능력이다. 이것은 인간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게 하며 주어진 현실은 암담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형성을 통해 깊어 질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목회자는 이 “자기치유능력”을 일깨워주고, 가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가족위기에 처한 부부를 설교자로 권면 하거나 훈계하기 보다는 먼저 이 부부가 이렇게까지 이른 상황에 공감을 해야 한다. 부부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들 부부가 가진 “자기치유능력”의 자원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위기에 처한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며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얻게 된다.

III. 닫는 말

가족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족 안의 갈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갈등발생의 근본원인은 그 가족이 가진 역기능적인 가족시스템과 구조에 있다. 가족시스템이론 안에서 가족들의 인식과 행동의 구조는 가족시스템의 구조와 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한 가정의 가족 모두는 그 가정이

39) N. Anderson & H. Goolishian, "Human Systems as Linguistic Systems: Preliminary and Evolving Ideas about the Implications for Clinical Theory," *Family Process* 27 (1999): 371-394.

가진 시스템 속에서 각기 하나의 요소를 이루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족 안에서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가족구성원은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며, 상호작용 속에서 그 가족시스템의 복잡성과 그 가족의 다양한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족의 위기와 갈등을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가족 안의 갈등은 더 이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의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 기인된 문제가 아니다. 한 가족시스템에서 발생한 갈등은 그 가족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표현된 것으로 본다. 즉, 역기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위기와 갈등은 바로 가족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는 갈등해결의 매니저이다. 성도 간에 다양한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가족치료의 가족시스템이론을 통한 가족이해는 이제 성도들의 가족위기와 갈등에 관한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가정에는 물론 영적인 차원과 가족 치유적인 차원이 존재한다. 목회자가 영적인 거룩한 도구인 성경과 말씀과 함께 가족 시스템적인 관점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성도들의 가정위기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상담은 교회현장 속에서 성도가정의 위기와 문제를 돕기 위한 목회자의 활동도구가 될 수 있다. 목회자는 위기에 처한 성도들에게 상담사와는 달리 자연스럽게 help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상담사 보다 먼저 찾아와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여기서 자연스럽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목회자는 전문상담가 보다 더 평소에 밀접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 왔기에, 그 성도의 가족이 이전에 직면했던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갈등과 문제에 대해⁴⁰⁾ 잘 알고 있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목회자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들

40) Friedman, *Generation to Generation*, 14.

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전문적인 상담 훈련을 받은 전문 상담사와는 분명히 구별이 되겠지만 Friedman은 “기독교상담의 본질과 관련하여 가족상담모델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이 사회의 어느 누구도 목회자보다 치료를 더 잘 촉진시킬 수 있는 위치는 없다”고 하였다.

목회자는 이미 다세대적 가족과정에 참여되어있기에 목회자에게 가족개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목회자는 가족체계개입의 가능성으로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는 가족들의 통과의례에 적극적으로 참여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족들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목회자는 가족문제와 같은 가족문제를 개입하는데 보다 치료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학과 목회 그리고 상담이 같은 분명한 지평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문제를 가족체계이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가족목회 돌봄의 모델이 기독교상담 영역 안에서 수용되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이선혜·신영화·서진환. “한국 가족치료의 현장과 인력: 전국기관 조사연구.”
한국가족치료 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3권 1호(2005): 79-123.
- Anderson, N. & Goolishian, H. “Human Systems as Linguistic Systems: Preliminary and Evolving Ideas about the Implications for Clinical Theory.” *Family Process* 27 (1999): 371-394.
- Bader, L. *Zwischen Wahn und Wirklichkeit*. Luzern: Bucher, 1976.
- Balswick, Jack O. & Balswick, Judith K. *The Family*. 황성철 역. 『크리스천 가정』. 서울: 두란노, 1995.
- Bateson, G. *Oekologie des Geistes*.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2.
- Bautsch, A. & Wiesinger, A. *Systemwissenschaftliche Integrationsversuche in der Psychotherapie, Insbesondere in der Familientherapie*. Frankfurt am Main: IKO-Verl. 1989.
- Boorstein, S. *Transpersonal Psychotherapy*. 정성덕 역. 『자아초월정신치료』. 서울: 하나 의학사, 2008.
- Boscolo, L., Cecchin, G., Hoffman, L., & Penn, P. *Familientherapie-System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1990.
- Boszormenyi-Nagy, I. & Spark, G. *Unsichtbare Bindung*. 5. Aufl. Stuttgart: Klett-Cotta, 1999.
- Bowen, M.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Family Therapy*. ed. P. Guerin. New York: Gardner, 1976.
- Carter, B & McGoldrick, M.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정문자 역. 『가족생활 주기와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 Dodson, L. S. *Family Therapy*. 이근후·박영숙 공역. 『가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1998.
- Friedman, Edwin H. *Generation to Generation. Family Process in Church and Synagogu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85.
- Hoffman, L. *Grundlagen der Familientherapie*. Salzhhausen: Iskopress, 1980.
- Goldenberg, I. & Goldenberg, H. *Family Therapy*. 장혁표·제석봉·김정택 공

- 역.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 Guntern, G. "Die Kopernikanische Revolution in der Psychotherapie." *Familiendynamik* 5 (1980): 2-41.
- Jones, E. *Systemische Familien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1995.
- Karle, I. *Seelsorge in Moder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6.
- Langer, N. *Psychologie*. Muenchen: Compact Verlag, 2006.
- Luhmann, N. *Soziale Systeme*, Grundriss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m Main: Verlag moderns lernen, 1984.
- Maslow, Abraham. *Motivation and Personality*. 오혜경 역. 『동기와 성격』. 서울: 21세기북스, 2009.
- Minuchin, S. *Familie und Familientherapie*. Freiburg: Vandenhoeck & Ruprecht, 1987.
- Morgenthaler, C. *Systemische Seelsorge*. Stuttgart: Kohlhammer, 1999.
- Napier A. & Whitaker, C. *The Family Crucible*. New York: Haper & Row, 1978.
- Satir, V. *Familienbehandlung*. Stuttgart: Krett-Cotta, 1979.
- Satir, V. *Selbstwert und Kommunikation*. Stuttgart: Krett-Cotta, 1975.
- Schlippe, A. von. & Schweitzer, J. *Lehrbuch der Systemischen Therapie und Beratung*. Paderborn: Vandenhoeck & Ruprecht, 1999.
- Simon, F. B & Clement, U. & Stierlin, H. *Die Sprache der Familientherapie*. Stuttgart: Klett-Cotta, 1999.
- Tillich, Paul. *The Courage to B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52.
- Walter, J. & Peller, J. *Loesungs-Orientierte Kurztherapie*. Dortmund: Verlag moderns lernen, 1994.
- Yarhouse, Mark A. & Sells, James N. *Family Therapies*. 전요섭외 역. 『기독교 가족치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Abstract】

View of System and Pastoral Counseling for Family Crisis

Kwang Hyun Choi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apply family therapy theory to pastoral counseling. Marriage is a probably most intimate form of a relationship. To a degree, conflict in such an intimate relationship is expected. There are many reasons for marital problems. In the middle of rapid social changes, the degree of family difficulties has reached a serious level. Since a family is a system in which the members interact each other, a member's changes inevitably affect another member's changes.

A family is usually connected with upper generation in psychological aspects, which requires an examination of at least three generation in order to diagnose and solve family problems. There are many cases of serious family problems faced by pastors, more and more of whom have great interest in family therapy in an attempt to provide more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to those troubled families. It may seem a little too much to apply a family theory to pastoral counseling.

Key words: family system, family crisis, pastoral care, dysfunctional family, Christian counseling